

강희업 2차관, “국민 생명 앞에 예외없다 ... 교통분야 건설현장 전방위 안전관리 강화”

- 31일 교통분야 공공기관 대책회의에서 선제적·전방위적 안전관리 체계 강화 주문

-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근 함양~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발생한 사망사고(7.28)와 관련하여 7월 31일 오후 도로·철도·항공 등 교통분야 공공기관을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,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,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.
 - 대책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공사, 국가철도공단, 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토지주택공사,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.
- 강 차관은 “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관리 감독의 책임을 저버린 결과”라고 지적하며,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.
 - 이어, “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”고 엄중히 경고하며, “공공기관 스스로가 책임있는 자세로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 - 또한, “앞으로 사고 발생 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과 함께,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공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검토하겠다”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.
- 강 차관은 “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것”이라며, “공공기관은 안전관리에 대해 실질적 변화와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”고 밝혔다.

- 아울러,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챙기는 책임 행정을 보여줘야 할 것”을 거듭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교통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배석주 (044-201-4166)
		담당자	서기관	최은영 (044-201-3792)
	도로건설과	책임자	과 장	오수영 (044-201-3888)
		담당자	사무관	송정규 (044-201-3889)
	철도건설과	책임자	과 장	지동선 (044-201-3950)
		담당자	사무관	박민웅 (044-201-4782)
	공항건설팀	책임자	팀 장	이호준 (044-201-4137)
		담당자	사무관	김준 (044-201-4138)